

## 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

경북대학교

최수빈

한국의 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한 이후 지금까지 일본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. 이번 유학 생활은 저의 문학 공부와 연구 생활에 큰 발전과 소중한 경험을 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대학원생으로서 교환 유학을 오게 되었기에 더 많은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으로,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긴장도 되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점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,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
저는 이번 유학생생활을 통해 석사 과정에서 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지도 교수님 이신 다니구치 선생님의 대학원 수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수업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읽고 비교하는 연습을 하였고, 국회도서관을 방문해 잡지나 신문 자료를 직접 열람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.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글을 읽고 사고하며, 나아가 글을 직접 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함께 수업을 듣는 튜터의 도움과 다니구치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고, 그 결과 큰 배움으로 이어졌습니다.

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만큼, 이번 유학 생활에는 저를 따뜻하게 도와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우선 이치하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유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제가 아파서 밖에 나갈 수 없었을 때 직접 찾아와 상태를 살펴봐 주신 일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또한 다니구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.

니다. 저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,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튜터 아츠미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밝게 반응해 주고 따뜻하게 들어주어 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어쩌면 외롭기도 했던 유학 생활 속에서 아츠미와의 만남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.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수료까지 이어올 수 있었고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